Warm heart & Cool head

# ECONOMICS NEWSLETTER 제 24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홍기현 / 편집인 : 이철희 / 편집조교 : 심경보 / 발행일 : 2011년 3월

## 황윤재 교수 'Econometric Society' 석학회원(Fellow) 선출

우리 학부 황윤재 교수가 2010년 11월 22일 열린 'Econometric Society' 연례회의에서 프랭클린 알렌(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스더 듀플로(MIT) 등 15명의 경제학자와 함께 신임석학회원으로 선출되었다.

'Econometric Society'는 1930년 발족된 유서 깊은 경제학회로 이론경제학 전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인 『Econometrica』를 1년에 6번씩 발간하고 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 총 석학회원의 수는 633명이며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들만이 석학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제이론 분야 혹은 경제이론연구에 기초가 되는 수학 혹은 통계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학술업적을 쌓은 경제학자가 후보자 명단에 오르게 되며, 이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출투표에서 기존 석학회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자는 'Econometric Society'의 석학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황윤재 교수는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우수한 여러 논문들을 『Econometrica』, 『Journal of Econometr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와 같은 학술지에 게재한 업적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부터 『Econometric Theory』의 부편집인, 공동편집인 등의 책무를 맡는 등 계량경제학계에서 활발하게 학술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미 한국인 출신 경제학자들 가운데 박준용 교수(Indiana University), 신현송 교수(Princeton University), 조인구 교수(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최연구 교수(Columbia University), 한진용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at LA) 총 5명이 'Econometric Society' 석학회원으로 선출된 선례가 있지만 국내 대학 재직 중에 선출된 경우는 황윤재 교수가 최초이며, 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역량이 점차 세계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제19회 서남초청강좌 개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WCU 사업단과 BK21 사업단은 2010년 11월 5일 오후 2시 경영대학 Supex Hall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및 기술경영경제학회, 경제추격연구소,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컬럼비아大(Columbia University)의 리차드 넬슨(Richard Nelson) 교수를 초청하여 '제19회 서남초청강좌'를 개최하였다.

'서남초청강좌'는 동양그룹이 서울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해 개최되고 있는 학술행사이며, 1991년부터 여러 학술분야의 세계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리차드 넬슨 교수는 '진화경제이론(Evolutionary Economic Theory)'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초청강좌에서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s: Implications for Catching-up Growth'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넬슨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진화경제이론을 현대시장경제를 다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방법이자 초기 경제학 분석의 전통을 따르는 이론으로 소개하였다.

(2면에서 계속)

## 이성휘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0년간 경제학 연구 및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해 온 이성휘(李性輝) 교수가 2011년 2월 정년퇴임한다. 이성휘 교수는 1968년 본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1978년 컬럼비아大(University of 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1년 본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20년 근속 표창을 받을 정도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거시경제이론, 응용거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특수연구 등을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하여 온 이성휘 교수는 수많은 제자들을 이 분야 전문가로 길러내 학계 및 관계로 진출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성휘 교수는 재직기간 동안 『경제수학』 등의 저서와 '고도성장기 이후의 일본의 금융발전과 그 한계', '중심통화지표와 통화성계수의 추정', '경제발전과 정책결정체계의 역할' 등 수십 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 경제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 외에도 이성휘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겸임연구원, 경제문헌자료센터부장, 연구부장, 발간부장과 중앙전산원 운영위원회위원, 사회과학대학 기획위원회위원, 경제학과장 등의 보직을 맡아 대학의 행정 및 학사업무 선진화와 학생지도에 크게 기여해 왔다.

INDEX ❶ 경제학부 주요소식 ❹ 신임교수 인사말 ❼ 동문기고 ❾ 재학생기고 ⓫ 교수기고 ⓬ 경제학부단신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3



## 경제학부 학술행사

# 제18회 SJE-KERI-KIF 국제심포지엄 개최

우리 학부 경제연구소(SJE)는 한국경제연구원(KERI), 한국금융연구원(KIF)와 공동으로 2010년 10월 8일(금)에 본교 신양학술정보관 3관 407호에서 '제18회 SJE-KERI-KIF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의 거시경제 정책(Macroeconomic Policies in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통화정책, 재정/금융정책,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우리학부 김인준, 이지순, 이근, 김세직, 김영식, 김소영, 이철인 교수를 비롯해 김경수(한국은행), 이재우(IMF), 양두용(경희대학교), 손상호, 이윤석, 서병호(이상 한국금융연구원), 이주선, 이소영(이상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자들이, 해외에서는 데이비드 쿡(HKUST, 홍콩), 마이클 데버룩스(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찰스 호리오카(Osaka University, 일본) 등의 연구자들이 심포지엄에 초청되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2010 Summer Economics Conference

경제학부 류근관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大(University of Maryland) 이수형 교수와 공동으로 2010년 8월 12일(목) 본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10 Summer Economics Conference(이하 SEC)'를 개최하였다. 2009년 처음 개최된 SEC는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경제학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연구 주제들을 소개하는 학회로 주목을 받았다. 2년차를 맞는 2010 SEC는 기존의 활발한 학회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스탠포드大(Stanford University)의 다케시 아메미야(Takeshi Amemiya)와 같은 저명한 계량경제학자가 개회사를 하는 등 학회의 무게감을 한 층 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량(Econometrics), 응용(Applied), 이론/금융/국제(Theory/Finance/International)분야 3개 세션에서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일大(Yale University)의 에드워드 비틀라실(Edward Vytlacil), 스탠포드大(Stanford University)의 한 홍(Han Hong), 토마스 맥커디(Thomas MaCurdy)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학부에서는 이석배 교수가 계량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고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학회에 참석하였다.

## 제7회 동경大-서울大 공동학술대회

경제연구소(IER)는 동경대학교 일본경제 국제공동연구센터(CIRJE)와 공동으로 '제7회 동경大-서울大 공동학술대회(The Seventh Joint Confer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2010년 10월 29일(금)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경제발전론과 산업조직론 이슈들(Issu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Organization)'이었다. 경제연구소 소장인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와 CIRJE 소장인 동경大 경제학부 신이치 후쿠다(Shin-ichi Fukuda) 교수가 개회사로 학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학회 순서에 따라 우리 학부의 김병연, 이철인, 김봉근, 조성진 교수, 동경大의 다카시 카노(Takashi Kano), 야스유키 사와다(Yasuyuki Sawada), 테츠지 오카자키(Tetsuji Okazaki), 토시히로 마츠무라(Toshihiro Matsumura) 교수가 각각 연구주제를 발표하거나 토론자로 본 학술행사에 참여하였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진화경제이론이란 신고전학파적인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가정 없이 진화경제학적 행동가정(학습과 적응적 행동)만으로도 경제현상과 성장이 충분히 설명 및 분석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 이론이다.

이 외에도 넬슨 교수는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장기성장의 결정요인, 지적 재산권, 기업들의 행태, 동아시아 및 후발국가 · 기업들의 추격형 성장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생산하였고 『American Economic Review』등 경제학계 유수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여 왔다. 이러한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5년에는 '레온티에프 상(Leontief Prize)'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날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경제학부 WCU 사업단과 BK21 사업단이 'Issues in Evolutionary Economics and Catching-up Growth'라는 제목으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넬슨 교수 외에도 한국, 대만, 일본, 호주에서 초청된 17명의 학자들이 논문발표자, 토론자 및 세션 좌장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교 경제학부에서는 김완진 교수가 서남강좌 조직위원장으로 홍기현 교수가 조직위원으로 이근 교수, 김병연 교수, 엘리아스 새니다스 교수가 조직위원 및 학회 논문발표자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 넬슨 교수를 소개 중인 이근 교수

▲ 질문자와 토론 중인 넬슨 교수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4



## 교수동정

### 주병기 교수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으로 선임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가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이하 JITE)의 '편집장(Editor)' 으로 선임되었다. JITE는 독일 튀빙겐에 소재한 출판사 Mohr Siebeck이 1844년 최초로 발간한 유서 깊은 학술지이고, 현재 SSCI, Journal Economic Literature(JEL),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the Social Sciences, Contents of Recent Economic Journals(COREJ)에 등재되었다. JITE는 응용경제이론,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제도경제(institutional economics), 법경제 분야의 논문들을 게재하여 왔고 주로 경제/사회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주병기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이 저널의 편집위원(Associate Editor)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편집장으로서 투고논문 심사 등의 JITE 발간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 이석배 교수 『Journal of Econometrics』 편집위원으로 선임

경제학부 이석배 교수가 'Elsevier B.V.'가 발간하는 SSCI 저널인 『Journal of Econometrics』의 '편집위원(Associate Editor)' 으로 선임되었다. 『Journal of Econometrics』는 계량경제학 분야의 탑 저널 중 하나로 경제학 전 분야의 학술지 가운데서도 매우 명망 있는 세계적인 학술지이다. 1973년부터 매월 발간되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학술지이기도하다. 이석배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3년간 투고논문 심사 등의 『Journal of Econometrics』발간 관련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 김병연 교수 통일평화연구소 부소장 겸임

김병연 교수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임한다. 통일평화연구소(http://tongil.snu.ac.kr/)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남북한의 통합 혹은 통일 후 사회 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총체적인 통일한국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학술적으로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운찬 前교수 명예교수 임용

정운찬 前 경제학부 교수가 2011년 3월부로 명예교수로 임용된다. 정운찬 교수는 제23대 총장직 등을 지내며 연구 · 교육 · 행정 분야에서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높인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교수에 추대되었다. 본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미국 프린스턴大(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운찬 교수는, 1978년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30여 년간 서울대학교에 봉직하며 거시경제학계의 대표적 학자로 자리매김해오다 2009년 9월 제40대 국무총리에 취임하며 교수직을 사임하였었다.

## 교수수상

### 2010학년도 우수연구, 우수강의 교수 선정

경제학부는 2010년도 우수연구 교수로 이근, 김소영, 이석배 교수를 우수강의 교수로 김선구, 황윤재, 김병연 교수를 선정하였다. 우수연구 교수는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우수강의 교수는 2010년도 1,2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교수 신규임용

경제학부는 2011년 2월 윤택 교수를 교수로 임용하였다. 윤택 교수는 1994년 시카고大(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과 금융경제학으로 앞으로 학부 및 대학원에서 화폐금융론 및 거시경제학연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윤택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2005년부터 수석 경제연구원으로 재직해오다 본교로 부임하였다.

## 교수 승진

박지형 교수가 2011년 3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였다. 박지형 교수는 1996년 미국 위스콘신大(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5년 9월 1일 경제학부 부교수로 부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무역론 및 국제무역론 연구 등을 강의하며 연구 및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 경제학부 BK21사업단 연차평가 2위

우리 경제학부 BK21사업단(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 4차년도(2009년 3월 1일~2010년 2월 28일) 연차평가 결과인문사회분야(경제/경영) 2위를 하였으나, 경쟁패널 5개 팀 중에 유일한 경영 팀이 올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따라서 경제학 팀 중에서는 3년 연속 1위로 평가받게 되었다.

### BK21사업단 2010년 2학기 주요활동내용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세미나) – 총 14회 개최
※ **Brown Bag Lunch 세미나**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 총 6회 개최
※ **BK21사업단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 참여학생 및 연구자 8명 지원

**김대현(석사)** 스페인(코로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Business & Economics
**김대현(박사)** 타이완(타이페이) 제5회 세계한국학대회
**김성희(석사)**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Globelics 2010
**유원석(박사), 최영민(박사후연구자)** 홍콩(구룡) International Research Forum
**이문섭(석사)** 미국(투싼) 2010 North-American ESA Conference
**임부루(박사)** 덴마크(올보르) DRUID-DIME Academy Winter Conference 2011
**권은지(박사후연구자)** 미국(샌프란시스코) Asia-Pacific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5



# 신임 주병기 교수 인사말

북한산이 멀찌감치 보이는 고려대학교에서 귀국 후 첫 4년 반을 보냈습니다. 웅장하고 힘 있는 북한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일했던 일터와 정든 동료들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2010년 가을학기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옮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작고 투박한 관악산은 저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전공분야는 미시경제이론, 공공경제학(재정학), 사회선택이론, 게임이론,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이고 특히 분배적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 기제(mechanism)와 제도(institution)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는 추상적인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계약, 법, 산업구조, 국제무역, 환경 등의 영역으로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효율성이 경제학 제일의 규범적 기준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효율성이 그토록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갈수록 회의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 또한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떻게 공정성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무엇이 공정성인가? 과연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 혹은 집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어떤 경제적 기제 속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결과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 협동을 통하여 항상 달성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제 연구들을 요약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다양한 경제모형들 속에서 제기하고 답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성과들 중에는, 시장경제에서의 완전경쟁균형, 비례배분원칙(proportional division), 그리고 다수결원칙에 의한 투표제도, 이 세 가지 집합적 의사결정방식의 정당성을,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조작불가능성(non-manipulability)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수리경제학적 방법과 공리적 접근(axiomatic approach) 방법입니다. 공리적 접근 방법이란 연구자가 추구하는 규범적 성질이나 기초적 행동 특성을 수리적 모형 속에서 정식화하고 이렇게 정식화된 "공리(axiom)"들을 충족하는 (개별주체나 사회의) 선호 · 가치체계의 특성 혹은 경제기제나 제도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 게임이론, 사회선택이론, 협상이론 등 미시경제이론의 핵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업들을 두서없이 나열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미시)경제이론을 통한 규범과학의 통합과 재구성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계획 · 고안되거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도에서 규범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때로는 규범 그 자체가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점은 규범의 문제와 규범적 가치판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윤리학, 미학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었지만,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범을 기술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왔습니다. 다양한 학제에서의 연구방법론들을 통합하는 규범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경제이론은 이러한 통합의 "언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적 정의와 제도에 대한 연구는 규범과학에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정의(justice)와 공정성(fairness)은 관습, 도덕, 법 등의 제도에 내재한 근원적 가치이자 동력입니다. 개개인의 행복은 그가 속한 제도가 내포한 가치에 영향을 받고 역으로 제도는 개개인의 행복을 대표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지속 가능합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사회와 구성원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는 인간사회의 연구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정의론은 근대자본주의가 복지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롤즈(John Rawls), 하사니 (John Harsanyi), 드워킨 (Ronald Dworkin), 센 (Amartya K. Sen)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었습니다. 공정성으로서의 분배적 정의관은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실증이론으로 발전되었고 그 성과를 사회선택이론, 후생경제학, 협조적 게임이론, 협상이론, 공정배분이론 등의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성과들이 보다 실제적인 정책수립이나 제도기획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경제이론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험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는 개인 선호의 "사회성"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덕적 감성(분노, 복수심, 자비로움)이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 간의 협동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가설이 최근 진화심리학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제학에서 많은 실험적 연구들, 특히 행동경제학으로 분류되는 연구들은 공정성이 개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정의와 공정성은 가치판단의 틀 혹은 규범적 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론 모형의 구성요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분배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전통적 접근과 심리학이나 행동(실험)경제학의 개인행동적 접근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을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두 접근방식의 건설적 융합을 통하여 경제학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개척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졸업 (1993.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 (1995.2)
-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졸업 (2001.5)
- 켄사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01.9–2006.1)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부교수 (2006.2–2010.8)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0.9–현재)
- 계량경제학보(『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공동편집인(Co-Editor) (2007.9–현재)
- 『Korean Economic Review』편집위원 (2007.6–현재)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Editor) (2011.4– ), 편집위원(Associate Editor) (2010.10–현재)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6

**이석배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8월부터 본교에 근무하게 된 신임교수 이석배입니다. 저는 1996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고, 199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2002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University of Iow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2010년 7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지난 가을학기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경제통계학 연구를 강의하였고 이번 봄 학기에는 학부 고급 계량경제학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된 이 기회를 빌려, 제 전공분야를 소개하고 외국에서 강의 및 연구하면서 느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과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제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입니다. 특히 비모수적, 준모수적 계량기법에 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비모수적, 준모수적 계량모형은 경제이론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증적 함의를 임의의 추가적인 가정 없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적인 계량기법에 비해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연구할 주제들이 많지만, 현실 경제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은 금방 주지 못하는 좋게 말하면 기초학문분야이고 나쁘게 보면 탁상공론 같기도 한 전공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계량경제학 연구를 대만 출신 영화감독 이안 (Ang Lee)의 영화 "음식남녀"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노년의 유명 요리사는 미각을 잃어서 손녀딸 도시락을 싸주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녀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아버지를 자랑 하고 싶어서 점심도시락 주문을 받습니다. 친구 하나가 쉬운 요리를 부탁하자 손녀딸은 그런 요리는 자기 할아버지가 못하시니 대신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 요리를 부탁하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도 제 연구분야만 주로 깊게 공부하다 보니 주변에서 간단한 계량경제학 질문을 하면 오히려 당황해 하고 순간 답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연구 완수된 대용량의 지식들을 소장하는 능력보다는 남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능력을 높게 치는 학계의 평가 속에 살아 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학부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20년간 경제학을 공부하고도 이렇게까지 잘 모를 줄은 몰랐는데 할수록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볼 때는 경제학이 철옹성처럼 잘 만들어진 학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틈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비단 제 개인의 부족함 뿐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연구하면 세상에 보탬이 되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제학자이면서 대학교수로서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연구, 강의 및 학생 지도, 그리고 행정, 교내 및 외부 활동으로 구분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계량경제학에 관한 전공 연구는 국내와 국외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및 학생지도에 관해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 왠지 모국이고 모교라 그런지 더 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국보다는 국내에서 더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연구들에 대해 언급하고 인사말을 끝낼까 합니다. 한국 자료를 이용하고 정교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계량모형을 개발해서 한국경제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실증연구를 해보는 것이 제 개인적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해 보았는데 기회가 되어서 국내 자료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에 있는 다른 경제학자들과도 공동연구하고 중요시사문제들에 대해서도 배워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졸업 (1996.2)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졸업 (1998.2)
- 아이오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졸업 (2002.8)
- 런던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2.9–2010.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0.8–현재)

## 교수 신간안내

### 대공황 1929–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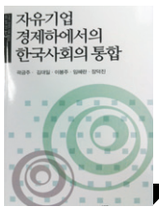
**양동휴, 나원준 역**
**미지북스 (2010. 8)**

『대공황, 1929~1933』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가 1963년에 출간한 『미국화폐사, 1867~1960년』 가운데 제7장 '대공황, 1929~1933'을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은 2008년판을 완역한 책이다. 경제학 분야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미국화폐사, 1867~1960년』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서는 그 중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20세기의 경제적 대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통화공급의 안정적인 조절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쓴 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이 근**
**박영사 (2010. 8)**

경제학 입문서로 1997년 경제위기를 살펴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해 조망한다. 이 책은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경제학을 보다 현실감 있고 알기 쉽게 전달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판이하게 다른 한국형 대기업에 대한 재평가, 워싱톤 컨센서스의 퇴각, 스티글리츠의 경제학비판 등을 다루었다.



###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곽금주, 김대일, 이봉주, 임혜란, 장덕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9)**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총서 제2권인 이 책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정책방안을 탐색한다. 더불어 양극화 문제의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김대일 교수는 제5장에서 교육 불균형 확대와 교육성과의 저하에 대해 저술하고 있다.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7



# 신임 이지홍 교수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0년 2학기부터 경제학부에서 근무하게 된 신임교수 이지홍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국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캠브리지대학교 Trinity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런던대학교 Birkbeck College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열의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연구분야는 미시이론, 좀 더 자세히는 게임이론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경제학이론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저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학이론의 골격은 수학을 바탕으로 한 "모형(model)"입니다. 여러 "가정(assumption)"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결과(result)"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들이 얼마만큼 설정한 가정들에 의존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물론 모형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모형을 통한 현실의 추상화(abstraction)는 고층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바람저항(wind resistance)을 단층집을 지을 땐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추상화를 통하여 관심 있는 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엄밀히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과 분석이 경제학이론의 뼈대라면 그 살은 결과의 "해석(interpretation)"입니다. 한 예로 일반균형이론은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을 잘 보여주지만 가격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모형과 풍부한 해석이 균형을 갖출 때 하나의 이론이 완성됩니다.

저의 주된 관심분야는 게임이론 중에서도 "반복게임(repeated game)"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회사들이 반복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러한 반복게임을 하는 경제주체들이 당면하는 "인센티브(incentive)"는 같은 게임을 한번 시행했을 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적 게임(one-shot game)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도 반복게임에서는 선택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는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이윤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들이 경쟁 대신 담합(collusion)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홍 교수

제 연구의 한편에는 여러 형태의 반복게임을 분석하고 "균형(equilibrium)"을 도출해내는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Gambling Reputation: Repeated Bargaining with Outside Options"라는 논문은 반복협상게임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논문의 한 예로 회사와 소비자, 또는 회사와 노동자간의 반복적인 (보상 또는 임금에 관한) 분쟁과 합의를 찾아가는 협상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종종 소비자와 노동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는데 저의 논문은 그러한 비대칭정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협상결과에 반영되는지를 이론화합니다.

게임이론의 다른 한편은 원하는 결과가 균형으로 나타나도록 게임을 설정하는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투표, 규제, 입시제도 등 메커니즘 디자인이론이 다루는 사회문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들은 주로 일회성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의 연구는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회 같은 주체들은 정책을 반복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표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efficient)인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저의 논문 "Efficient Repeated Implementation"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이론을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과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 접목시키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히 rationality로 대변되는) 가정들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이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같은 학문들과 연계하여 좀 더 현실적인 관점으로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관한 가정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 근래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실험경제학은 현실에서 수집된 통계 대신 계획된 실험(controlled experiment)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 내어 이론을 테스트해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approach)들이 기존의 이론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경제학 전반을 더욱 발전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말을 끝낼까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주로 해온 연구들을 확장하는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repeated mechanism design에 관한 논문에서는 게임을 시행하는 주체들 사이에 정보가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얻은 결과들이 과연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상황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연구가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들 중 하나입니다.

좀 더 넓게는 제가 공부해 온 이론들을 현실문제에, 가능하다면 한국 경제에 관한 문제들에 적용해보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이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현실문제에 접근하는데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understanding) 또한 경제학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졸업 (1997.6)
-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졸업 (2004.2)
- 런던대학교 버크벡칼리지(Birk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경제학과 조교수 (2002.10–2010.8)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08.3–2010.8)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0.9–현재)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8



# 태평양을 넘나든 10년 주기의 도전

**김준일**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어느덧 내 나이 오십을 훌쩍 넘긴 지금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조금은 겸연쩍은 기분으로 다가왔다. 원고 부탁을 받고 나서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들에게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친 것은 평소 나서기를 꺼려하는 나로서는 매우 의외였다.

지난 30년 동안의 내 인생은 경기변동으로 치자면 10년 주기의 장기파동에 꼭 들어맞는 모양새다. 198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떠나 1990년대 초에 귀국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에서 일 한 후, 다시 2002년부터 국제기구(IMF)에 근무하다 이제 올해부터 한국은행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10년 주기로 홀로 혹은 가족을 이끌고 태평양을 건너는 장거리 이동을 한 셈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었을까? 직종으로 따지자면 거시경제학도라는 큰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단순한 삶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 도전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시작된 미국유학은 신중한 생각 끝에 혹은 청운의 꿈을 품고 내린 결단은 아니었다. 형제들이 모두 차례로 유학길에 오른 관계로 미국유학은 어려서부터 내 머리에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특히 형과 누나들이 보낸 그림엽서에 본 미국 대학의 캠퍼스는 나에게 많은 상상력을 키워준 동경의 대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학이 특별히 좋아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저 그림엽서에서 본 학생 들이 근사한 대학 캠퍼스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아 부러웠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크게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내 머리 속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타고난 도전정신의 자연적 발현인 것일까? 아니면 넓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물과 생각을 접하면서 생긴 변화일까? 나는 분명히 후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맴도는 유학생활에서 내가 생각한 도전과제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이왕 미국까지 왔으니 경제학 공부라도 열심히 해 보자는 것이었다.

아름드리나무가 드리워진 근사한 캠퍼스에서 느끼는 자유는 내가 상상한 것 그대로였으나, 일단 공부에 대한 마음을 잡고 나니 경제학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나의 눈을 끈 것은 매우 정교한 이론적 틀과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경제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수 천만 혹은 수 십억 인구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을 일관된 사고의 틀 속에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은 대단히 도전적인 학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기회가 온 것은 상당한 운과 함께 나름대로 갈고 닦은 연기력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교수 생활 중에 누렸던 조그만 기쁨 중의 하나는 교수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추천서를 부탁드리던 위치에서 이제는 추천서를 써 주는 위치에 섰다는 점이었다. 대학원생들과 바닷가 근처의 선술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경제문제를 토론하고,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던 학부 학생이 나를 알아볼 때에 느끼던 기분은 지금도 가끔 나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미국에서 4년간의 교수생활을 뒤로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집안 사정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한국에서 영어 대신 우리말로 가르치고 연구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은 현실도피적 생각도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의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은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끼던 즐거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 계기였다. 내가 하는 분석과 전망이 수많은 서민들의 고된 삶에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큰 절망을 안겨 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KDI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첫 해의 끝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날 과음의 숙취가 채 가시기 전에 출근길에 나선 나는 유난히 쌀쌀한 날씨를 가르며 홍릉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경동시장 앞을 지나다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선 내가 발견한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 중 맨 마지막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었다.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채 작은 몸을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 김장배추가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계셨다. 힘들게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할머니 얼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손수레를 밀어 주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를 도와 드리려 차에서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짧은 순간 생각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할머니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신호등 불빛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고, 반대 편 차선에서 출발하는 차들은 할머니에게 경고의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곧이어 내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자동차 홍수 속에 갇힌 할머니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날 아침에 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 분은 안전하게 건너가셨을까? 나는 왜 용기 있게 내리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크게 나의 귓전에 울리는 소리는 수많은 서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었다. 왜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그것도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훌쩍 넘은 나라에서, 힘에 부치도록 무거운 짐수레를 끌어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가?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내게 다가왔다.

경제학과 후배들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하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복지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토론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문제는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문제이므로, 그 해답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이 합의를 이루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의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경제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8면에서 계속)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9



그러나 사회적 가치판단 혹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원리는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경제학과 후배들이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거시경제학을 전공한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정확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이는데 일부나마 기여하는 것이었다. 비록 더 많은 복지혜택이 할머니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여는 못했으나, 성장률 혹은 인플레 1 퍼센트의 차이가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나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성장,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1997년의 외환위기가 웅변하고 있다. 대량실직과 기업파산, 자산가치의 폭락, 치솟는 물가 등 이중 삼중의 경제적 충격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으로 일하던 나는 외환위기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속에서도 외환위기의 긴박했던 순간과 그 이후의 위기극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위기 직후 해외채권단과 채무조정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하고, IMF와 금리 및 환율정책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경제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아는 많은 KDI 동료들 역시, 위기예방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스스로를 비판하고 반성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자문관을 마치고 KDI로 복귀한 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경제위기 해결사인 동시에 세계 각국의 경제자문관 역할을 하는 IMF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문은 곧 열렸다. 나의 교수 및 연구경력은 물론 자문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시 10년 만에 밟아본 미국 땅은 내가 예전에 알던 미국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미국도 변했지만, 나의 생활공간이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상아탑에서 현실적 제약 속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제기구로 바뀐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다.

회전문 현관을 들어서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만국기, 웅장한 건물 천장의 유리창을 지나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은 햇빛,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연상시키는 중앙의 넓은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을 청아한 소리로 적시고 있는 단정한 모습의 실내 인공폭포. 이 모든 것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IMF의 권위를 뽐내는데 손색이 없어 보였다. 비록 우리에게는 가혹했던 IMF였지만, 나는 그 권위의 원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싶었다. 나의 새로운 도전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경비원과 눈인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근무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IMF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실력과 경험이 뒷받침 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권위라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모인 인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자유로운 토론문화, 연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내부검증, 새로운 경제이론과 방법론을 연구에 접목시키려는 체계적 노력, 엄격한 직업윤리, 그리고 직원들의 자부심과 열정. 이러한 실력과 자격이 있었기에, IMF는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도전이 드라마틱한 감동을 자아낼 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 밖 세상 구경을 먼저 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감히 훈수를 두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국내에서도 경쟁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어느 국가도 개방 없이는 경제적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수익도 없다는 경제학의 가르침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전략에 기초한 도전을 하려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가? 셋째,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고 또 창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지성인의 면모를 잃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후배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최고의 인재들임에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따뜻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없이는 한낱 지식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제 또 다른 나의 도전이 한국은행에서 시작되고 있다. 머지않아 인생도전의 첫 문을 열어야 할 후배들과 함께 외쳐본다. "우리 모두 Fighting!"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졸업 (1979. 2)
-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석사 졸업 (1984. 5)
-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박사 졸업 (1988. 5)
- UC Santa Cruz 경제학과 조교수 (1988. 9–1992.8)
-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1992. 9–2001.12)
- IMF 조사국 부과장 (2002. 1–2011. 2)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2011. 3–)

## 서울대학교 최고 전략과정 안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이미 6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2. 동창회 조직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모집안내**

❶ **모집인원** 약 40 명

❷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체의 사장급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❸ **지원절차**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❹ **문의사항** TEL : (02) 880-5432 FAX : (02) 875-9867 E-mail : asp@snu.ac.kr Home Page : http://econ.snu.ac.kr/~ecores

**알립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다음번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담당자 이메일 : skb0629@snu.ac.kr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10



# 2010년을 돌이켜보며…

**권혜지**
석사과정

생각할수록 나에게 지난 2010년은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참으로 벅찬 한 해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학에 대해 접근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기대도 하지 못했던 행정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대단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내가 속해 있는 연구실에만 해도 나보다 훨씬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경제학부 소식지 기고문을 쓴다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과분한 일이다. '타인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 한참 못 미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나는 작년까지 총 3번의 시험에 응시했다. 그 중에서 처음 2년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풀타임 고시생으로 공부했고, 2010년 시험을 칠 때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만 공부를 했다. 2009년 2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2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했고,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라면 인연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고시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대학원에 가서도 고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계속 도전해 보기를 권유했다.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고시공부에만 매달려도 안 되는데, 대학원 공부와 병행하면서 어떻게 합격하겠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곧바로 취업을 할 것도, 유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정고시에 도전해 보기로 했고, 뜻밖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시험공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은 아니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전혀 수험적합적인 내용이나 접근법이 아니었다. 게다가 대학원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공부 부담이 상당했고, 체력도 달려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번 시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하루 종일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고시 공부에만 매진했던 나에게 대학원 진학은 하나의 큰 '변화'이자 도박이었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가 되었던 것 같다. 고시촌에서 멀어지면서 학원가 방식에 젖어있던 내 공부 방법이나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떠올린 것 역시 왕관을 붙잡고 골똘히 고민하면서가 아니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도중이었다. 눈앞에 왕관을 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생긴 왕관의 크기를 잘 측정해서 부피를 계산할지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없었다. 왕관에서 잠시 떨어져 목욕을 하던 도중,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면서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부피를 계산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무사히 왕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Eureka!!!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식을 오래 고수하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져 퇴보하게 된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1등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1등이 되도록 한 바로 그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필름 카메라의 1인자였던 Kodak이 그러했고, 한 때 전자제품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Sony가 그러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위기설을 가져나오며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직원들이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난관에 봉착하거나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포기하기 전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 경험상 항상 내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식만이 옳고 유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조언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마치 내가 대학원 생활과 고시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었듯이.

다사다난했던 2010년…….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교훈도 얻었던 한 해였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난히 안정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나이지만 앞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 ASP 20기 수료자 명단

| | | | | | |
|---|---|---|---|---|---|
| **고영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상은**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 **이신영** | (주)두산 상무 |
| **권매희** | 외환은행 지점장 | **박진성** | 삼이운수(주) 대표이사 | **이환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 **김덕수** | KB국민은행 기획본부장 | **배동기** |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무 | **장연희** | 예스에이피엠(中) 대표 |
| **김석구** | 하나대투증권 상무 | **변상완** |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 **전영하** | 삼성자산운용 상무 |
| **김영대** | 금융감독원 국장 | **송대수** |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 **전화숙** | 기업은행 개인고객부장 |
| **김유상** | 삼성화재 상무 | **신현근**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장 | **정진우** | 동양종합금융증권 상무 |
| **김창수** | 삼성물산 상사부문 부사장 | **심 실** | (주)유니프로 회장 | **정화영** | 우리은행 부행장 |
| **김현근**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유영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실장 | **진영호** |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부이사장 |
| **김희열** | 우리신용정보(주) 대표이사 | **유태열** |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소장 | **최광일** | 삼성생명보험(주) 전무 |
| **문형욱**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 **이성욱** |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1부 부장 | **허선영** | 비노인빌라 대표 |
| **박병문** | 이트레이드증권 상무 | **이승기** | 국군정보사령부 통합정보처리단장 | **황유원** | 미래에셋증권 영업부장 |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11



# University of Minnesota, 짧았기에 그리운 15주의 기억

이현주
학부4학년

2009년 3월, 세찬 바람이 창밖에서 웅웅대는 미네소타의 불 꺼진 기숙사 한 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는 찰나, 난 갑자기 이대로 잠에 빠져버리면 안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나 내가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생활이 모두 꿈은 아닐까, 라는 엉뚱한 두려움은 그 날 밤 쉽사리 나의 눈을 감지 못하게 했다.

비현실적으로 추웠기 때문일까, 나에게 미네소타에서의 겨울은 아련한 꿈과 같았다.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SAF 재단을 통해 가게 된 University of Minnesota. 2009년 봄 학기, 15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4년의 대학생활을 마치는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그 곳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달콤한 허니문이었고 또한 대학생활의 한 반환점이었다고 생각된다.

## Honeymoon Stage 현실과 꿈의 중간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국제학생들만 따로 받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외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처음엔 '허니문 스테이지' 여서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오랜 시간동안 무기력해지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루하고 짜증난다고. 4개월이라는 짧은 생활을 한 나는,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이 '허니문 스테이지' 의 들뜸 속에서 보낸 것 같다.

'한국에서 교환학생 왔어요.' 라는 말 한 마디로 나는 일단 주목받을 수 있었고, 기숙사 방으로 들어와 소개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지 않으면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다. 난 이 곳에서 다시 신입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캠퍼스, 새로운 수업과 새로운 생활.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서도 나는 캠퍼스를 걷는 것이 즐거울 만큼 들떠 있었다. '외국인, 아시아인, 교환학생' 이라는 꼬리표는 입학 첫 학기에 얻을 수 있는 '새내기' 라는 이름표와 비슷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고 또 환영받을 수도 있었다.

새내기와 다른, 혹은 더 좋은 점이 있었다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용감해질 수 있었으며, 짧은 시간만 머문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떡볶이 재료들을 사다가 기숙사 친구들에게 만들어 대접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친해보려는 노력도 하고, 행사에는 빠짐없이 나가고, 또 공연이 있을 때는 함께 갈 수 있냐고 청해 보기도 하였다. 서로 완벽한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기숙사 방이 아닌 라운지에 앉아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다.

한국인이 많지 않은 미네소타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리려 했던 나는 미네소타의 친구들과 차츰 친해질 수 있었다. 나의 허니문 스테이지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도움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Middlebrook이라는, 2학년이 대부분이고 기숙사 층끼리 사이가 좋은 기숙사에 운 좋게 배정되어, 우리는 더욱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고,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진짜 미국 학생처럼 살아보자.' 는 비행기 안에서의 다짐이 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특별난 것 없는 일상이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쇼핑을 가고, 드라마를 보며 빈둥대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녹아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추억이 되었다. 기숙사 퇴사날, 서로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들과의 마지막 허그는 잊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허니문 스테이지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정신적 방어기제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미네소타에 내려 기숙사로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가족도, 친한 친구도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떨어져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룸메이트에게서 기숙사 친구들을 소개받을 때, 난 그들의 얼굴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아직 나에게 Greg과 Max가 아닌 '외국인' 이라는 범주에 함께 묶여 있을 뿐이었다. 기숙사 라운지에 처음 앉아있었던 날, 난 귀에 기름을 바른 것마냥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지나가는 영어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했다.

나는 미네소타에서의 생활을 '꿈만 같았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꿈이 즐겁지만은 않은 것처럼, 사실은 그저 달콤했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얼떨떨하고 신기해서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콧속이 얼어붙는 추위는 분명 진짜지만, 내가 발 디디고 있던 모든 현실에서 동떨어진 맥락이기에 내일 아침 일어나 '모든 것은 꿈이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생활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임에는 확실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라고 추천하고픈 꿈이었고, 허니문이었다.

## 대학 생활의 반환점

한국이라는 현실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2학년을 마치고, 여러 진로들을 놓고 고민하던 시점이었다. 교환학생을 가서 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또한 서울대를 벗어나 다양한 외국친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사람들도 만나게 되며 진로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스스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미국 특유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좋아하는데?' 를 끊임없이 묻는 그 곳에서, 타인에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을 놓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니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다만 경제학부생으로 아쉬웠던 점은, 많은 수업이 교수들이 아닌 박사 말년 차의 대학원생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수업들이 친절하게 진행되고, 대학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미네소타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에게서 직접 수업을 듣지 못해 경제학에 대한 탐색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하기 어렵다.

미네소타에서의 한 학기는, 남은 1년 반의 대학생활을 열심히 보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지루해 보였던 관악의 캠퍼스도 한동안 떨어져 있다 돌아오니 더욱 정들어 보이고, 진로가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니 (그리고 돌아오니 졸업이 가까워 온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보다 열심히 남은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지면이 부족하여, 미네소타 대학에서의 실질적 생활을 보다 자세히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부디 후에 떠나는 후배들은 보다 현명하고 알찬 교환학생 생활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윤광이

이준구 교수

내가 윤광이를 처음 본 것은 경제학원론 시간이었다. 강의실 맨 앞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그를 본 것이다. 그때만 해도 윤광이의 건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 휠체어에 자세를 잡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한 눈에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런 고생의 흔적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맑았다. 수업 중에 나를 응시하는 시선이 아주 진지했다고 느꼈다.

날마다 윤광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분은 그의 어머니셨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들었지만, 그 분은 의외로 밝은 표정이셨다. 하기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오히려 신이 날 만도 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람을 느낀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무척 고된 나날을 보내셨을 게 틀림없다. 강철로 된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척 힘에 겨우셨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 남윤광 학우

나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직 향학열에 불타 있는 윤광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윤광이가 휠체어를 버리고 홀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그건 실현될 수 없는 꿈에 불과했다. 시간이 가면 좀 좋아지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그를 지켜보았지만 호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동안 캠퍼스에서 윤광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만나 들으니 척추 재수술을 받느라고 학교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수술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수술이 끝난 후의 모습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되었다는데 이것 하나 고치지 못하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것도 후에 들은 것이지만 윤광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아들 뒷바라지에 무리를 하셨으니 건강이 좋을 리 없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무나도 허망한 일이었다. 윤광이를 놓아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 가녀린 청년에게 왜 이리 끊이지 않는 시련을 주신다는 말인가.

이제 캠퍼스에서 윤광이 휠체어를 미는 역할은 아버지에게로 넘겨졌다. 하루 종일 윤광이 곁에 매달려 있으면 생업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 걱정은 기우가 아닌 듯, 가정 형편이 정말로 안 좋아 보였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어 그저 가슴만 끌이고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든 윤광이가 대학을 제대로 마칠 수만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윤광이를 만날 때마다 옆에서 그를 돕는 친구를 볼 수 있었다. 몇 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학생은 내 연구실로 찾아와 울먹이면서 윤광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내 가슴이 훈훈해짐을 느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윤광이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장하게 검은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 정말로 장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과는 달리 윤광이의 경우에는 졸업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선 그는 거동이 극히 불편해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혹시 그에게 안성맞춤인 일자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 찾는다는 것은 해변에서 동전 하나 찾는 것만큼 힘들 것 같다.

또한 그가 시설에 나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를 걱정스럽게 한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내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다.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 나가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이 몹시 답답하기만 하다. 과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오직 하늘만이 그 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윤광 학우**
**후원문의 :** 02-336-3100 (한벗둥지)
**후원계좌** : 국민 577301-01-127870

##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 mail : kang97@snu.ac.kr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지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mail : skb0629@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

서울대소식지24호_최종 2011.3.17 5:19 PM 페이지1



## 학생수상 및 장학금

### 장학금 수여

2010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50명 중 251명(전액 장학금 21명), 대학원생 47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박성훈 파트너 장학금 출연

박성훈 파트너가 출연한 1천만 원의 장학금이 미국 버클리大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2명에게 수여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2010년 11월 18일 라쿠치나에서 개최되었으며 BCG의 구근모 컨설턴트, 학부장, 이근 교수 및 학생 12명이 참석하였다.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제학부 자체 장학금 및 이근 교수 등 버클리 출신 교수들이 출연한 금액에서 소정의 지원금이 전달되었다.

### 크로바하이택 송한준 대표 장학금 출연

크로바하이텍 송한준 대표가 경제학부 2008학번 학생 5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였다. 경제학부에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11월 4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오찬을 가졌으며 홍기현 학부장, 이상승 부학부장, 이승훈 명예교수가 참석하였다.

### 이현재 장학기금 협약

2011년 1월 28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상과대학 17회 동문들이 출연하여 설립되는 '이현재교수 장학기금' 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 2010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0년 8월 31일 경제학부 14명의 교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20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2010 에너지논문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한국자원학회에서 주최한 2010년 에너지논문경진대회에서 본교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동구, 박선영 학생이 'The Effect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란 논문을 투고하여 우수상(한국자원경제학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제8회 한국경제신문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제8회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본교 경제학부 이은희 학생팀, 윤장수, 장진욱 학생팀, 이문섭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우수상 수상

2010년 8월에 개최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에서 경제학부 및 통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Imagine팀(경제학부 문지웅, 김정배, 이민섭, 통계학과 김동원)이 금상을 수상했다.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의 지도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Imagine팀은 전국 48개 대학교 69개 팀이 참가한 예선대회를 거쳐, 8월 20일(금)에 한국은행 본부에서 펼쳐진 결선에서 우승팀으로 선발되었다.

### 제9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여 9월 10(금)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에서 본교 경제학부팀(LES)이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 경제학부팀은 이상승 교수의 지도하에 '(주)인투더파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이란 주제로 경연하였다.

## 교무 및 학생활동

### 2010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0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30일(월) 11시에 문화관 중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송민경 외 6명의 박사를, 황순주 외 26명의 석사를, 이은혜 외 50명의 학사(최우등 5명, 우등 25명)를 배출하였다.

### 2010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1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4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 201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0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0년 12월 20일 ~ 2010년 1월 21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및 '화폐금융이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 조교 인사이동

강혜선, 박정이, 임지혜 조교가 퇴임하여 3명(민희연, 박다운, 이지혜)이 신규임용 되었고 2명의 조교가 보직변경을 하였다. 민희연 조교가 조교실 교무업무, 한다연 조교가 사무실 교무업무, 윤미연 조교가 장학업무, 박다운 조교가 학생업무, 이지혜 조교가 교수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국제화 추진 현황

### 2010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1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5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8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의 중국인 학생과 1명의 미국인 학생이 선발되었다.

### 버클리大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0년 10월초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10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大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영어학위논문작성 지원

본교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박사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석사 100만원, 박사 200만원을 교정료 등의 비용으로 지원한다. 경제학부에서는 석사과정생 5명, 박사과정생 2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어 영어논문 작성지원을 받는다.